

CSU Monthly 2026년 3월호

조선대학교

시대의 진심, 미래의 중심



CHOSUN
UNIVERSITY

“

시대의 진심에서 탄생해 **미래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민립(民立) 조선대학교
창학 100년을 향한 동행길에 **새로운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

신임교원 (2026. 3. 1. 임용)

**정환민** 조교수글로벌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한국어교육전공)

대한민국 유일의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의 일원이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조선대학교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민** 부교수글로벌인문대학
유럽언어문화학부(스페인중남미전공)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립대학의 고귀한 설립정신을 받들어 지역 사회의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관** 조교수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의생명과학과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의생명과학과 박종관입니다. 조선대학교에 부임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학생들의 성장과 학과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배** 교수법사회대학
행정복지학부

80년의 역사를 이어온 민족사학 조선대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규** 조교수경상대학
경영학부

명문 사학인 조선대학교에 임용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사조직의 데이터와
사례를 활용하여 경영 분야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을 최대한 학생들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호진** 조교수경상대학
경제학과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조선대학교의 일원이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개교 80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학이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도약하는 길에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김 원** 조교수IT융합대학 AI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조선대학교 AI·SW학부에서 인간 중심 컴퓨팅과 AI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기술과 가치를 탐구하며 기술과 사회의 공존을 지향하는 교육과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정환 조교수

IT융합대학 AI소프트웨어학부
(모빌리티SW전공)

조선대학교의 새로운 가족으로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현장과 학문을 잇는 교육·연구로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대학의 미래 가치 창출에 책임 있게 기여하겠습니다.



방관욱 조교수

의과대학
의예과(의학교육학교실)

조선대학교의 일원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학제적 학문 배경을 토대로 의학교육과 의료AI를 연구해왔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 비판적 사고와 책임 있는 판단 역량을 갖춘 의사 양성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실천하며 학교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백선화 조교수

의과대학
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대한민국 유일의 민립대학 조선대학교의 일원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원으로서 교육과 연구, 진료에 성실히 임하며 대학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따뜻한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미래 의료인을 양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발전과 도약에 보탬이 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기영준 조교수

의과대학
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학생과 환자 모두 오고 싶은 조선대학교 및 조선대학교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주현 조교수

의과대학
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안녕하세요. 분자유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신주현입니다. 조선대학교에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면서 조선대학교병원이 광주/전남 지역의 유전 질환 진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정재영 조교수

체육대학
태권도학과

“발(태) 주먹(권) 길(도)”인 태권도학과입니다. 발로 열심히 뛰면서 손으로는 바른 연구들 열심히 작성해서 태권도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홍인영 조교수

자유전공학부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장연주 조교수

교육대학원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AI융합 역량을 함양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신입직원 (2026. 3. 1. 임용)



조서윤 팀원

교무처
창의교육팀

조선대학교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종 팀원

교무처
학사팀

조선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시기에 직원으로 합류하게 되어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휴머니티, 혁신의 미래'의 슬로건을 마음에 새기며, 조선대학교의 도약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일원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윤수현 팀원

기획처
재정예산팀

모교이자 사회생활의 첫 시작을 함께했던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설렘을 원동력 삼아, 애교심을 갖고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 든든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현웅 팀원

대학원
교학팀

조선대학교의 일원이 되어 함께 근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맡은 업무에 성실히 임하며, 학교와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경제 팀원

대학혁신사업지원단
혁신사업팀

안녕하십니까, 새로 임용된 장경제입니다. 국내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에서 훌륭한 선배 동료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조직에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강현지 팀원

입학처
입학관리팀

깊은 전통을 지닌 조선대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늘 배우는 자세로 우리 대학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며, 변화와 도약을 향한 여정에 발맞춰 끊임없이 성장하여 조선대학교의 든든한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곽민주 팀원

정보전산원
정보개발팀

조선대학교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 위에 저의 노력을 더해, 조선대학교가 시대를 선도하는 명문 사학으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웅 팀원

정보전산원
정보관리팀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조선대학교의 새로운 엔진이 되겠습니다. 신입 교직원으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백병우 팀원

총무관리처
건축안전환경팀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환경팀 신입직원 백병우입니다. 학교의 비전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고민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더 큰 도약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도현 팀원

총무관리처
기계전기팀

조선대학교의 일원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학교의 발전과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영 팀원

취업학생처
장학팀

조선대학교 80주년의 시작에 함께해서 더 의미 있고 감사합니다. 새학기의 활력, 다가오는 봄이 주는 설렘, 발전을 향한 열정으로 임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혁신의 발걸음에 힘이 되는 교직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팀원

취업학생처
학생복지팀

늘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처음의 열정과 배움의 자세를 잊지 않고 조선대학교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직원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월 첫째 주: 조선대-SD바이오센서, 웰에이징 선도 위해 맞손
- 2월 둘째 주: 조선대 디지털 뇌파지도 구축 본격화... '웰에이징 Asia No.1' 대학으로 도약
- 2월 셋째 주: 설 연휴
- 2월 넷째 주: **조선대학교 'CSU 글로벌·RISE·대학혁신 성과포럼' 첫 개최**

조선대, 'CSU 글로벌·RISE·대학혁신 성과포럼' 첫 개최

대학 주요 사업 공동 성과 공유 '첫 사례' '세 개의 물결, 하나의 미래' 제시

조선대학교가 'CSU 글로벌·RISE·대학혁신 성과포럼'을 개최하고, 대학이 추진 중인 주요 국책·재정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사업 간 연계와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성과포럼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남 진도 솔비치에서 개최됐으며, 김춘성 총장, 강희숙 행정부총장, 광주광역시 대학인재정책과 선미정 팀장, 광주광역시교육청 정훈탁 장학관, 순천대 글로벌대학 사업단 총괄운영센터 안옥희 팀장, 대학 교무위원 및 주요 보직자, 교직원 등 약 210명이 참석해 대학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조선대학교는 현재 글로벌대학사업, RISE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대학 핵심 재정지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각 사업의 추진 성과를 구성원과 공유하고, 대학 차원의 전략적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 및 인사말 ▲정훈탁 장학관의 '대학입시 관점에서 바라본 고등교육혁신' 기조강연 ▲김선중 글로벌대학추진단장, 신종호 RISE사업단장, 강성호 대학혁신사업지원부단장의 사업별 추진 현황 및 우수성과 발표 ▲우수 참여자 시상식 ▲교직원 분야별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각 사업단은 학생 중심 교육 혁신, 지역 협력 성과, 제도 정착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사업 추진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사업 간 유기적 연계 가능성을 확장하고, 구성원들이 각 사업을 별개의 과제가 아닌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김춘성 총장은 "사업 유치와 추진을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온 구성원들의 수고가 오늘의 성과포럼으로 이어졌다"며, "세 개의 물결이 하나의 큰 물결로 통합·융합돼 조선대학교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는 앞으로도 각 사업의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대학 혁신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Interview

78세 만학도, 배움으로 인생 2막을 열다

“민법책은 늘 곁에 둡니다”

조선대학교 법학과 송형중 동문 인터뷰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1949년생, 올해 78세인 송형중 동문은 70대에 조선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 최근 4년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았다.

어린 시절 그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960년대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생활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나주에서 젃소 농장을 운영하며 생업에 매진해 온 그는, 70대가 되어서야 그 꿈을 다시 이어갔다.

학문을 배우고, 손주별 학우들과 어울리며, 또 새로운 전공에 도전하기까지. 그가 말하는 ‘배움의 의미’를 직접 들어봤다.

Q1. ____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나주 왕곡면 갈멜농장에서 젃소 100여 두, 논밭 2만 여 평을 경영하고 있는 1949년생 78세 송형중입니다. 이번 2026년 2월에 조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Q2. ____ 70대에 대학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또한, 많은 대학 중 조선대학교 법학과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평소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1960년대에 가뭄이 심하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뜻을 실현하고 싶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조선대학교 법과대학은 역사와 전통이 깊은 곳이고, 지역에서 법조인을 많이 배출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법이 참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의 법 상식을 잘 전하고, 생활 속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윤희유’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 조선대 법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3. ____ 젃소농장을 운영하시며 학업을 병행하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A.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도 낯설었고, 스마트폰 출석도 할 줄 몰라 며느리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생활을 극복해 온 의지가 제 삶에 녹아 있었고,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배우며 익혀갈 수 있었고, 결국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Q4. ____ 대부분이 손주별인 학우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세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소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제가 먼저 어린 학우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이를 내세우기보다는 함께 배우는 학생이라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먼저 다가가 서로 도우며 지내자고 했고, 점심도 함께 먹고 커피도 사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코로나로 격리된 학생이 있었을 때는 장을 봐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소통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편하게 대해줘서 고맙습니다.(인터뷰 도중에도 지나가던 학생이 먼저 인사를 섰던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Q5. ____ 조선대학교에서의 수업이나 교수님, 동기들과의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입니까?

A. 코로나 시기에 입학해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첫 대면 수업을 갔던 날이 기억에 납니다.

첫 시간이 영어 수업이었는데, 원어민 교수님이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셔서 잠시 당황했습니다. 준비를 못 했던 터라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때 대학이라는 곳이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곳이구나 느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순간이자, 또 추억입니다.

Q6. ____ 이번 학업 도전이 선생님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 남을 것 같습니다.

A.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Q7. ____ 이번에 취득한 법학과 학위를 향후 어떻게 활용하실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A.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법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관공서에서 “안 됩니다” 하면 그냥 돌아섰는데, 공부를 하고 나니 왜 안 되는지 절차가 보이더군요. 교수님께서 민법책은 가까이 두고 자주 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읽고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면서 소소한 법적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Q8. ____ 졸업 후 타 대학 작업치료학과 진학을 계획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까요?

A. 살다 보니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노력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건강이더군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막연히 바라보고만 있기보다, 제 몸을 관리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작업치료학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면서 제 삶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Q9. ____ 배움을 망설이고 있는 중·장년층 또는 조선대학교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후배들도 즐기던 도전 정신으로 자기 삶을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instagram



facebook



blog



youtube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참여 안내

참여방법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약정
조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다운로드하여 우편, 이메일, 팩스 송부

계좌안내

신한은행 100-036-638130(예금주: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문 의

조선대학교 홍보팀(062-230-6234/ fund@chosun.ac.kr)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

☎ 062-230-6490 E-mail: cupress@chosun.ac.kr